

# 구호만 남은 지방선거... 실종된 복지비전



전용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축제의 여운보다 아쉬움이 크다.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였음에도, 여러 지역에서 당선 이후 어떠한 비전으로 지역을 이끌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물론, 분야별 정책의 세부 내용조차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당선인들의 복지 공약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지자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지자체장의 복지 비전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공약은 지역의 구체적 여건을 외면한 채 '사각지대 해소', '지원금 확대', '수당 신설' 같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나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숙고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실현의 경로와 방법론은 공허했다.

복지 정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빈곤, 질병, 고립, 돌봄의 공백 등 삶의 각종 짐(疾苦)을 감내하는 이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숭고한 사업이다. 청년의 실업, 노인의 고독, 장애인 소외, 빈곤층의 절망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을 통해 그 무게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장이 복지 공약을 선거용 수사로만 다루는 것은 이 중대한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각 정당은 사회적 가치를 정련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약 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일부 당선자들 역시 지역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전국적 복지 담론을 단순히 차용하기에 급급했다. 부실한 공약은 임기 내내 행정의 나침반을 잃고 표류하는 지방정부로 귀결되며, 그 해악은 고스란히 주민의 뒤통으로 돌아간다.

이제 당선인들은 정책을 행정의 중핵(中核)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 복지 정책은 중앙에서 하달되는 획일적 처방이 아니다. 지역마다 인구구조, 산업 기반, 복지

인프라 등에서 고유한 맥락을 지닌다. 지역 주민의 필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단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가다듬는 것이 지방자치 복지 행정의 진정한 존재 이유다.

당장 출범하는 각 지자체의 인수위원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인수위는 선거 기간 미처 다듬지 못한 공약을 정교한 정책으로 가다듬는 핵심 공간이 되어야 한다. 복지·보건·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적극 결합시켜 그들의 제언이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가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배분의 공간으로 변질된다면, 시민의 삶이 아닌 내부 결속에만 복무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의 고단한 삶에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책임자다. 복지 정책은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가장 진지한 연대의 표현이다. 시민들 또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원의 현실성을 꼼꼼히 따져 보는 성숙한 유권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 월드컵 축구와 한국 바이오산업



기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로 대중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든 축구 팬들의 유쾌한(?) 혹은 냉소적인 분석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 개인이나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은 자력 진출이라는 최고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렸다. 하지만 사령탑의 전술이나 조직 내 리더십이 부재하다면 개별 주체의 노력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도된 실패'라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할지도 모르는 현실에 처했다.

이 답답한 풍경은 축구장만의 일은 아니다. 경제지 기자의 시각에서 복개해 보면 경

제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고 지구력을 찾아도 정책 방향성이 어긋나면 시장은 왜곡된다. 집값과 기름값은 내리지 않고 있으며 환율은 최고치라는 현재 대한민국 민생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 국내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대외 통상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괴로운 이야기들은 결코 월드컵처럼 외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선이 분산되는 사이에도 경고등은 점점 더 붉게 타오른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달레미를 겪는다.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부 조직 중심의 강력한 대책만을 촉구해야 할까 아니면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자각하고 깨어나야 할까.

큰 숲을 그리는 방향성이 없다면 결국 각자 도생하다 지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외풍

은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모두가 전술의 부재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숫자로 증명되는 위기 신호에 정공법으로 맞서야 할 때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최근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 운영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바이오기업에 직접 투자를 단행하는 등 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전 세계가 탐낼 만한 기술력에 훌륭한 지원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셈이다.

신약개발과 첨단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은 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에 그칠 것이다. 상부 조직은 현장 책임자의 권한을 존중하며 흔들지 말아야 하고 현장 리더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전술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위안과 요행을 바라는 리더십으로는 눈앞의 진짜 경제 달레미를 결코 돌파할 수 없다.

/mlee236@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0일 (음 5월 1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재물운이 잠시 막힙니다. **60년생** 건강에 항상 유의하며 몸을 잘 살피세요. **72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8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 49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면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61년생** 이성이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3년생**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85년생** 모든 운이 좋은쪽으로 돌아갑니다.
- 50년생**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62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흔들림 없이 행하세요. **74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특히 주의하세요. **86년생**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51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5년생** 노력하지만 보람 없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87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 52년생**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기운이 이어지겠습니다. **64년생** 원하는 꿈이 너무 원대합니다. **76년생** 야속하지만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8년생** 재물운이 너무 좋습니다.
- 53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65년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77년생** 동쪽에 귀인이 있어 도움의 기운이 따릅니다. **89년생** 사업이 차차 전진이 있습니다.
- 54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66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78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되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사방에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 중입니다.
- 55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67년생** 원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아직 능력이 부족합니다. **79년생** 업종은 바꾸지 마세요. **91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 56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68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며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8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2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 57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9년생** 일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81년생** 인간관계에 소홀하지 마세요. **93년생** 재물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큰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 58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70년생** 여행을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갈수록 힘들어지니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94년생** 길을 잃거나 해를 당하게 될 수 있어 조심하세요.
- 5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71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부부 인연

부부 사이의 인연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이라면 무엇일까? 바람을 피우거나 가장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등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부인연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추사 김정희의 부부 이야기는 심금을 울린다. 추사 김정희는 9년간 귀양살이를 했는데 멀리 제주로 유배를 가서는 외로움을 달래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면서 입맛이 까다로웠던 그는 음식을 좀 보내 달라고 했고 부인이 이 씨는 병석에 있었음에도 추사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보내곤 했다. 천릿길 바다까지 건너 제주까지 도착하는 동안 음식은 다 상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천 리 멀리 있는 길을 가는 동안 어쩌면 당연히 상할 것을 알면서도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보냈을 것이다.

그런 추사의 부인은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귀양 간 지 이 년 만에 명을 달리했다. "어서 몸을 추슬러 답장을 주시오."라고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대신 부인의 부고를 전해 들은 그는 제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음식 투정을 하였던 자신에 견딜 수 없어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애절한 심정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이 자못 비통하다. 조선 천하의 명필로 이름난 그였지만 임종도 지킬 수 없었던 지아비로서 참담한 마음을 글로 지었다. "묘장월모송명사(柳將月? 詔冥司) 내세부처역지위(來世夫妻易地爲) 아사군생천리외(我死君生千里外) 사군지아차심비(使君知我心悲)". 뜻인즉 "월하노인을 데리고 저승에 하소연하여 내세에는 부부가 처지를 바꾸어서 나 죽고 그대는 천 리 밖에 살아남아 그대에게 나의 이 슬픔을 알게 할까나?" 월하노인은 월모(月母)라고도 하는데 혼인을 관장하는 신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적 훈련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7		2		
		2		6		4		
		9		4	5		2	
				9		2		
5	9						8	7
		7		1				
1			4	2		7		
	8			5		3		
	2		6	7	3			4

5					2	6		4	
	4				3		8		
8				4	9				
7	8	2	6		4				
		4				7			
				5		7	4	2	8
				9	7				3
	5		4					7	
4		3	1						5

4	1	8	8	2	9	9	2	6
9	6	8	2	9	1	4	8	1
8	9	2	6	2	4	8	9	1
9	9	6	4	1	8	2	8	2
2	8	4	1	8	2	9	6	9
1	8	2	9	6	9	8	2	4
2	9	9	4	8	6	1	8	
6	4	1	8	9	2	9	8	
8	2	9	2	8	6	1	4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